

### “생활 속 재난 대응 배워보아요”



광주시가 2일 광주 북구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안전 교육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광주 북구 초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안전 교육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의 교육운영

상 문제점을 발굴·보완하고 내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재난안전 전문강사인 강운 장애인문화협회 강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재

### 광주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현장 점검 문제점 발굴·보완...내년도 교육운영 반영

대응인 지진과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영상교육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설정해 대피훈련을 함께 실시했다. 재난 상황별 대피 체험교육도 병행하면서 장애인들과 보호센터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안전교육에 대한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생활안전, 재난대응, 심폐소생술 분야의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생,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으로 영·유아기, 청소년, 청·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운영 중이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교육 현장 확인을 통해 교육운영상 발굴한 문제점은 보완해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취약계층 시민 모두가 재난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재난을 대비해 안전한 시민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베이커리&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사회적기업 행복한거북이, 푸르메재단과 함께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상암점에서 ‘제6회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참여 대상은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매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다. 올해 대회는 매장별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단체전으로 치뤄졌으며, 최종 우승은 고덕점이 차지했다. 우승한 매장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에게는 SPC컬리너리아카데미를 통



해 커피 관련 국제 자격증인 SCA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고,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한다. 심사를 맡은 차승수 SPC그룹 커피개발실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의 기술교육을 담당하며 비장애인 못지 않은 실력과 열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순천시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장소는 행정복지센터 24개소, 파출소 14개소의 주차위반 빈발지역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법주차 적발시에는 10만원, 이면 주차·물건 적재 시에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된 새로운 순천시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경덕 교수, 장애인들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장애인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행사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동방사회복지회에

서 운영하는 ‘서대문해벗누리’ 소속 장애인 40여 명이 함께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서 교수는 “3.1운동 100주년 등 역사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역사탐방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 KT, 청각·언어장애인 통화연결음 서비스

KT가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통화수신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선보였다. KT는 이날부터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수신자를 위해 부가서비스인 ‘링투유’ 인사말에 음성통화가 어려움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신자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신자는 통화연결음을 통해 ‘지금은 전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안내를 받게 된다. KT는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실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반영해 인사말 멘트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하는 경우 다른 내용의 인사말로 변경할 수 있다. 음성안내 목소리는 KT 광고모델인 강다니엘이 녹음했

다. 이밖에 KT는 ‘나를’(narle) 영상통화 서비스 활용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나를’은 일대일부터 최대 8명까지 동시에 그룹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채팅을 할 수 있다. KT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5G 커뮤니케어’(CommuniCare, Communication+Care) 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링투유 청각장애 인사말’을 무료로 제공하고, ‘나를’의 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한다.

뉴스1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